

인프라 현상을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개발 - 환운데이션 모티브를 중심으로 -

최 은 희 · 송 미 령*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Development of Dress Design using Infra-Syndrome - Focusing on Design Concept of Lingeries -

Eun-Hee Choi and Mi-Ryong Song

Prof.*, Dept. of Clothing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Modern fashion can be expressed as 'pursuit of cocktail effect', which means not unformed, not bounded by a rule, and mixed with various styles.

Among them, the most outstanding trend of style is the 'infra-syndrome' which designs underclothes like a ordinary wear, which has outstood since early 1980s. In 1990s, this syndrome made active progress and now facing 21th century, it becomes one of the big trends in fashion. Clothes of infra syndrome are one of attempts for freedom expressed by progressive designers who pursuit new and surrealistic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ximize the aesthetic beauty of 'infra-syndrome' apparel centering on dresses of which designs are notable derived from underclothes. With the sewing techniques using the special facilities of the lingerie-manufacturing industry and making use of new material which can be used for lingerie wear, this research strives to expand new ideas in the lingerie industry as well as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dress culture by developing novel lines from a new form of dress and lingerie-foundations of dress suitable for human body.

Key words: pursuit of cocktail effect, infra-syndrome, clothes of infra syndrome, sewing techniques, new material.

I. 서 론

최근 패션의 중요한 흐름인 란제리 룩은 '80년대 초부터 겹옷과 속옷의 경계가 모호한 패션이 과립 디자이너에 의해 제기되어 속옷의 겹옷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란제리 룩과 브래지어를 겹옷으로 디자인한 브래지어 룩 등이 선보이면서 '90년대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속옷의 겹옷화 현상은 다음 세기에 대한 기대감, 기계문명의 급속한 발달, 환경 파괴에 따른 정신적인 긴장감 고조 등이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배경으로

나타난 복식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식 디자인과 독특하고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패션지의 출현으로 대중들에게 즉각적으로 소개되어오고 있다. 속옷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받아 들여졌고, 199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의 'Infra-Apparel'을 주제로 한 전시는 속옷의 겹옷화 현상이 세계적인 유행의 한 흐름인 것을 증명하여 주었다. 형태면에서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 편리성을 강조한 슬림드레스에서 평상복과 외출복에 이르기까지 속옷 스타일의 겹옷을 선

호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으며 드레스 문화가 급격히 패션저리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란제리 업체의 노하우를 현대 드레스 개발에 접목시킴으로써 인프라 현상의 미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란제리 웨어의 다양화를 위해 란제리 업체의 특수 봉제 기기를 활용하여 드레스의 새로운 디테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두번째는 드레스의 현대화가 신소재의 개발로 인하여 란제리웨어의 소재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란제리 업체의 소재를 활용하여 드레스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며 마지막으로 드레스 안에 착용되는 화운데이션을 드레스에 접목시킴으로서 실루엣의 자연스러움과 기능성, fit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란제리 업체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드레스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화운데이션의 정의와 기능, 화운데이션의 형태적 특성과 봉제방법을 알아보고 속옷의 역사를 화운데이션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또한, 인프라 의상의 정의와 실루엣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현대패션의 흐름과 화운데이션 드레스를 중심으로 드레스 디자인에 속옷의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소재와 형태별로 나누어 디자인자들의 작품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위의 연구배경들을 바탕으로 현대 복식의 한 흐름인 속옷의 걸음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속옷의 소재와 형태를 활용하여 다음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한 5개의 드레스 디자인을 같이 개발하고자 한다.

첫째, 속옷의 소재의 활용과 봉제기법을 활용하여 인체 공학적인 기능중심의 라인을 위주로 디자인하고자 한다.

둘째, 속옷의 형태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디자인 하고자 한다.

셋째, 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색채는 블랙으로 통일하여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III. 화운데이션의 이론적 배경

1. 화운데이션(Foundation)

1) 화운데이션의 정의 및 기능

화운데이션이란 사전상 의미로는 영어의 '기초'라든지 '토대'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며 양장의 기초의상 즉 피부와 직접 밀착하는 부분의 신체의 선을 고르게 하여 위에 입는 옷을 보다 아름답게 끌어내는 토대가 되는 내의라 한다.

화운데이션이란 보온의 기능을 갖는 언더웨어(underwear)와 장식적 목적으로 착용되는 란제리(lingerie)등을 포함하는 언더클로스(underclothes)의 일부로서 신체의 프로포션(proportion)을 정리하여 주는 것의 총칭이다.¹⁾

복식에서는 화운데이션 가먼트(foundation garment)의 약어로 사용되며 이러한 화운데이션의 종류에는 브래지어(brassiere), 거들(girdle), 올인원(all-in-one), 웨이스트니퍼(waist-nipper), 가터벨트(garter-belt) 등이 해당된다.

원래 화운데이션은 의복의 외형적 미를 나타내는 형태적 기능효과를 가졌으며 체형보정을 목적으로 하는 화운데이션은 그 본래의 기능인 인체 미학적, 의학적, 생리위생학적, 심리학적 기능에 의거하여 인체를 아름다운 곡선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인체의 운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디자인이 좋으면서 위생적이고 지나친 구속성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²⁾

화운데이션의 보정적 기능은 화운데이션을 착용함으로써 정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브래지어(brassiere)는 종전에 무조건 유방을 감싸주는 것으로만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유방을 중앙으로 모이게 하여 이상적인 형으로 보정하여,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있다. 또한 환경이나 사용목적 등 용도에 따라서 선택 착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1) Mary Brooks Picken, *The Fashion Dictionary* (N.Y.: Funk & Wagnalls, 1973), p.49.

2) 심무자, 최선희, 「의복의 구속성에 관한 연구(III)」, 『화운데이션의 의복압과 근활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유패피지, 17권 2호, 1993, p.198.

서는 패션성 및 감각의 기능을 겸비한 하나의 의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보정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화운데이션 기능의 3대 요소³⁾인 적합성(fit성), 안정성(support성), 조형성(reforming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체형과 활동에 따라 자신에 맞는 화운데이션을 선택해야 한다. 화운데이션의 기능으로 또한 미적 기능을 들 수 있는데 겉옷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겉옷의 실루엣은 복장의 외형선 즉 복장의 전체적인 윤곽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복장의 표현선과 외계와의 접촉면을 나타내는 면을 실루엣이라 한다.⁴⁾

겉옷의 실루엣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언더 가먼트인 화운데이션으로 프로포션 메이킹업 하는 것은 중요하다. 속옷은 겉옷의 안에 입어서 직접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겉옷의 착장 상태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어떤 시대에는 속옷의 유행이 겉옷의 유행을 창출해 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빠니에, 크리노린 등의 스킷트버팀대의 대유행이 겉옷의 실루엣을 결정지었던 것 등이다. 속옷의 보정 기능이 겉옷의 실루엣을 형성한다고 볼 때 속옷은 당대의 조형적 기호를 표현하는 미적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⁵⁾

한편 화운데이션의 착용에 있어서 의복압은 생리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의복에 의해 적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는 자세를 좋게 하고 내장하수를 방지하는 등 정신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기도 하나, 의복압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인체의 특정 부위에 지나친 압박을 주게되어 동작을 구속하고 생리 및 순환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며 피로를 증가시키게 된다.⁶⁾ 강한 조임의 화운데이션은 혈액의 순환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압박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재질에 따라 화운데이션의 착용이 달라야 하며 그것은 피복의 재질에 관계되는 문제로 재료의 조직, 통기성, 보온성, 흡습성, 대전성 등이 관계된다.

2) 화운데이션의 종류

자기 몸매의 결점을 커버해 주고 바디라인을 조절하여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 역할을 하며 “보정복”이라 불리기도 하는 화운데이션은 사회적 환경이나 겉옷의 실루엣과 그 시대가 이상으로 하는 체형에 따라서 종류, 형태, 소재, 의미 등에 변화가 생긴다.

화운데이션의 종류와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브래지어(Brassiere)

여성의 유방 부분을 보호하고 적당히 조형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기초의상으로 원래는 유방을 받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현재의 brassier는 단순한 유방받침만이 아니고 유방형을 고르게 하는 기능도 그 목적의 하나이다. 브래지어의 3대 구성요소로는 cup, strap, wing이 있고 5대 구성요소에는 3대 구성요소에 center, hook-eye가 첨가된다. 여성의 유방은 크기도 형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여러 종류와 사이즈가 있다.

(2) 거들(Girdle)

여성에게 있어서 체형의 변화가 가장 큰 허리, 힙, 배 등 하반신의 선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거들의 의미는 허리띠·허리줄·띠갈음·띠모양으로 조르다. 이며, 거들은 조여주는 정도에 따라 하드형(원단 자체가 두껍고 조여주는 힘이 강하다), 미디엄형, 소프트형(착용감이 편해 점차 사용이 늘어간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⁷⁾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3) 올인원(All-in-one)

풀셋이나 바디슈트(body suits)라고 불리기도 하며 브라와 거들, 웨이스트 니퍼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상체와 하체의 완벽한 조형을 원피스 스타일로 만든 것이다. 하나로서 모든 기능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몸에 적합한 fit성이 요구된다.

3) 쌍방울, 「신입사원 연수 교재」, 1997, p.186.

4) 유송옥, 「복식의장학」(서울: 수학사, 1983), p.54.

5) 최원, 「서양 여성속옷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5.

6) 안영숙, 「화운데이션의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8.

7) 쌍방울, 전개서, p.202.

(4) 웨이스트니퍼(Waist nipper)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한 것으로 가슴과 힙 부분을 제외한 허리만의 완전 보정을 위하여 굽은 벨트형태로 생겼다.⁸⁾

(5) 가터 벨트(Garter belt)

스타킹이 흘러내리지 않게 고안된 고리모양의 고무 벨트가 붙은 벨트형태의 속옷으로 체형 보정보다는 스타킹을 매는 것이 목적이다.

IV. 인프라 의상의 이해

1. 인프라 의상의 정의 및 출현 배경

인프라(infra)라는 조어는 내부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복식은 일관된 변화는 아니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여성의 비밀스런 요소를 사회적인 영역에 전해왔다. 즉, 인프라 의상은 의복이 개인적인 것의 일부를 대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속옷의 걸옷화 즉, 인프라 의상은 노출과 은폐, 정속성과 비정속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함의 양면 가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의상이라 할 수 있으며 캐주얼 경향 혹은 무게있는 옷차림에서 해방되어 가벼운 옷차림을 즐기려는 욕망 즉, 기능성, 효율성,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하려는데 기인한다.⁹⁾ 또한 인프라 의상은 비현실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실험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지난 세기의 고전적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의 한 표현으로 시도되었고, 세기말적 현상이 복식에 반영되어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고 일상에 대한 회의와 이탈, 구태의연함에 대한 반동으로 신체노출이 확대되고 착장의 변형을 추구하게 되어 인프라 의상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의상이 실질적으로 출현된 배경을 살펴보면 18세기말에 고대 그리스 의상을 동경하는 풍조가 높아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여성복의 유행은 민주화, 개방, 진보에 포인트가 놓여진 새로운 사치

의 요청과 일치하고 있었다. 하이웨스트하고 고대풍으로 트레이프된 새로운 슈미즈 드레스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얇은 옷감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여성의 몸의 자연스런 선을 나타내고 보다 행동하기 쉬운 것으로 변했다. 19세기를 거치면서 슈미즈 가운은 점차 일반화 되었고, 20세기가 되면서 현대의 속옷의 형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8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90년대 들어서는 속옷의 걸옷화가 대중들에게 패션의 한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디자이너들의 인프라 의상에 대한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 인프라 의상의 실루엣의 변천

1) 19세기

19세기에는 속옷의 경박한 모습은 유희와 유혹의 표본으로 비쳤으나 이미 이때부터 속옷이 걸옷화되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자의식적인 발전의 모습도 보였다.¹⁰⁾ 이렇게 속옷은 19세기와 20세기에 그 애매성이 깨기됨에 따라 서서히 걸옷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인프라 의상은 직선형의 실루엣으로 원피스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속옷을 겉으로 보이도록 한 가장 실질적이면서 암시적인 속옷은 약 1783년경 엘리자베스 비제 브루틴(Elizabeth Vigee-Lebrun)이 그린 마리 앙투와네트의 면 슈미즈인 슈미즈 아 라 퀸느(chemise a la reine)였다.¹¹⁾

이후 속옷은 티 가운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내실에서 저녁 만찬용으로 나타났다. 슈미즈 드레스는 제정 시대의 엠파이어 스타일로 발전되었는데, 엠파이어 스타일은 그전 시대의 단순한 형태의 속옷이던 린넨 드레스를 엄숙하고 고전적인 스타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의 속옷의 걸옷화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그림 1)

19세기 후반 여성들의 사적인 세계와 남성들의 공적인 세계 사이의 오래된 구분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실내복은 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8) 임영미, *옷과 장신구와 옷입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서울: 경춘사, 1984), p.122.

9) 장경주, 「1980년대에 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p.56.

10) 이선재 역, *인프라 의상*, (서울: 경춘사, 1996) p.13.

11) 이선재 역, *상계서*, p.14.



<그림 1> 포리는 보르게즈 공비 1809년
R. 르페브르 그림
(파리모드 200년, 1995)

되었고¹²⁾ 19세기 말엽의 모든 기성복은 여성들의 속옷에서 보존 완성된 정교한 의복에 기원한 기술들을 즐겨 사용했으며, 결국 속옷은 데이 드레스나 가운 등 새로운 쓰임새를 갖게 되었다.¹³⁾

2) 20세기

(1) 전반기

1890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는 속옷과 실내복이 대 성황을 이룬 시대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패저팅¹⁴⁾(fagoting), 피코(picot), 핑킹(pinking)으로 처리된 시집 등의 란제리 제작과정이 차츰 겉옷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¹⁵⁾

이 시기도 직선형의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으나 긴 길이의 드레스에서 짧은 길이의 슈미즈 드레스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증반으로 가면서 허리를 강조하고 스커트는 점점 넓어지는 A-line 실루엣을 이루었으며 드레스의 고전적인 형태가 대부분 선보여지고 있었다. 1900년경의 의상장식은 각 시기의 테크닉의

새로워진 흥미와 역사적 재생을 통하여 19세기 취향의 큰 발전을 따르는 디자인 요구에 의해 계층화되어 나타났다. 회전무늬와 나뭇잎 장식이 맨 처음으로 단순한 속옷 위에 무늬로 등장하였으며 이어서 엘리자베스풍의 빗금무늬, 부풀어 오른 소매, 화려한 바디스, 또 의상 가장자리에 속옷에 사용되던 무늬가 이용되었다.

1903~4년에 제작된 이브닝 드레스는 당시 가장 세련되고 섬세한 속옷의 소재와 기법으로 만들어져 화려한 형태의 겉옷으로 변용되었다.(그림 2) 망사로 만들어진 슬리브는 부드러운 사스루의 소재와 드레이퍼리로하여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출해 내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세미 이브닝 드레스는 가슴을 깊이 파고 양쪽 팔을 대담하게 드러낸 흰색 드레스로 속옷에 이용된 회전무늬와 나뭇잎 장식 무늬가 화려하게 수 놓아져 있다(그림 3). 그리고 신축성 있는 밴드, 장식띠와 같은 패넬에 자수된 레이스, 혹은 실크 리본 등이 겉옷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속옷의 필연적인 결과의 하나는 1950년대 의 베이비 달(Baby Doll) 드레스로서 란제리와 잠옷



<그림 2> 이브닝 드레스
(인프라 의상, 1996)

12) 경한주, 「현대 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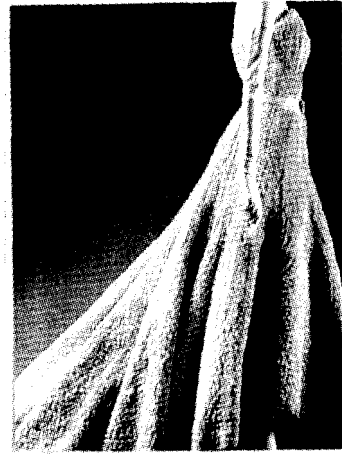
13) Richard Martin & Harold Koda, *Infra Apparel* (N.Y: Metropolitan Meseum of Art, 1993) p.65.

14) 패저팅(fagoting): 두천을 새발뜨기로 연결하는 기법.(거들에서 주로 사용한다.)

15) 채금석, 「현대복식에 나타난 프랑스 표현주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92.



<그림 3> 세미 이브닝 드레스
(인프라 의상, 1996)



<그림 4> 크리스찬 디올의 이브닝 드레스
(인프라 의상, 1996)

의 에로틱한 움직임의 유혹을 연출하기 위하여 어깨에서부터 나풀거리는 원추형 흐름을 짧은 스커트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¹⁶⁾ 이 드레스의 거대한 레이스 러플은 의상이 외의라기 보다는 내의라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 주지만 실은 외의로서 변용되어 디자인된 것이다.

또한 크리스찬 디올도 '50년도에 레이스를 주름잡아 고전적인 스타일의 드레스를 선보이면서 속옷의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제작하였다.(그림 4)

(2) 후반기

'70년대 패션에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이다. 이시기 운동선수들의 인가와 명성은 그들이 착용한 노출된 운동복이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몸의 일부가 노출되는 캐미솔드레스나 피팅드레스가 선보이면서 속옷의 종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창작력을 표현하는 아이템이 되었다. '80년대 후반에는 몸의 일부를 대담하게 노출해서 섹시함을 느끼게 하는 코르셋, 올인원, 브래지어, 가터 벨트에서 모티브를 얻는 란제리 룩이 많

이 보이며, 특히 의복에 있어서의 성적인 노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간접적으로 승화되어 상징적인 형태로 진보되어 왔다.

20세기 후반은 다양한 패션이 공존하는 시기이므로 뚜렷한 스타일이나 실루엣이 나타나지 않고 화운레이션 모티브 자체를 걸음으로 표현하는 복식이 선보이고 있다. 웨스트우드의 "외의로서의 내의" 테마는 정교하게 섹시하며, 특히 외의 위에 입혀진 브래지어는 1982~3년 버팔로 걸즈(Buffalo girls) 컬렉션에서 소개되어, 많은 정통 패션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사진가들에 의해 복제되었다.¹⁷⁾ 역사적 의복에 관해 남다른 감각을 갖고 있는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1986년 전통적 형태인 코르셋을 걸음으로 전환시켜 코르셋 드레스를 선보였으며 열정적 대중문화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G. Versace)는 전통적인 코르셋의 페러다임으로부터 1991~2년에 코르셋 가운을, 테리 뮈글러(Terry Murrel)는 1992~3년에 코르셋 수트를 제시하였다.¹⁸⁾ 벤티 존슨(Betsey Johnson)은 1993~4년 코르셋 드레스를 발표하였고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시스루를 통해 고정관념상을 폐되어야 할 가슴과 속옷의 노출을 보여주었다.

16) 이선재 역, 전계서, p.18.

17) Valerie Steele, *Women of Fashion - Twentieth Century Designers*, N.Y; Rizzoli, p.154.

18) Richard Martin & Harold Koda, 전계서, p.52.

1990년대의 폴셋류는 새로운 직물들과 기술에 의해 더욱 향상되어 평범하게 감춰져 있는 '내의'가 아니라, 색깔이 있고 장식적인 '외의'로 압혀짐으로서, 감각적인 쾌락과 패셔너블한 외관아래 성적인 차원이 잠재한 에로틱한 함축과 충동을 전해준다.¹⁹⁾ 메리 위도우에 영감을 받은 끝피에의 금속 폴셋. 익살맞은 원추형 브래지어, 역사화된 폴셋 세트는 종종 의복 형태의 우스운 위치 전환을 보인다. 그는 1990년대 마돈나의 'Like a virgin' 코르셋에서 전통적인 타이트 레이스를 선보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²⁰⁾ (그림 5). 패션 디자이너인 장 폴 고틀리에, 들레 앤 가바나, 칼 라거필드, 지아니 베르사체등은 최근의 의복에 영원한 체형보정의 조형적 구성에 대한 탐구를 실물화 시킴으로서, 관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관제시키고, 유쾌한 유희와 아이러니, 재치, 시대착오 같은 앞선 감각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폴셋을 덜 부담스러우면서도 효과적인 모드로 창조하고 있다.²¹⁾

20세기 후반 패션에 있어서 속옷의 사용은 의복과 관련된 관습적 주제인 성, 신체적, 심리적 압박감

과 만족감과 유기적 연관성을 보여주며, 장식하고 수를 놓은 화운데이션의 모티브는 의의의 요소로서 등장하게 되었다.²²⁾

3. 현대 패션의 경향과 런제리 룩

1) 현대 패션의 경향

산업화와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한 반발로 포스트모던의 영향을 받은 '90년대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크게 자연주의, 민속주의, 복고주의, 미래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자연으로의 회귀는 옛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과거 시대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났고 이는 복식에 있어서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문명의 기계화, 획일성에 대한 회의는 전원과 민속적인 스타일에 새로운 시대 감각을 첨가시킨 복고스타일로 탄생되었다. 또한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감은 형태와 소재의 틀을 파괴하는 미래패션을 선보이게 되었으나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1990년대에는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의 이런 패션 시스템을 "칵테일 효과(Cocktail Effect)"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패션은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²³⁾

2) 런제리 룩

1990년대의 대표적인 패션 경향은 인체를 노출하고 화운데이션의 모티브를 복식에 표현하거나 속옷을 이용한 착장의 변형을 이용한 런제리 룩(Lingerie look)이 유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성을 에로틱하게 표현함으로써 조형적인 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런제리 룩은 '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일반 대중에게 크게 어필되지 못해 트렌드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세기말 현상과



<그림 5> 장 폴 고틀리에 작품
(인프라 의상, 1996)

19) 경한주, 전제서, p52.

20)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21) 김주영,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32-33.

22) Richard Martin & Harold Koda, 전제서, pp.47-48.

23) 채금석, 『현대복식미학-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가치를 중심으로』(서울:경춘사, 1995), p.87.

부합되어 활성화되어 여성복 유행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어 속옷을 모티브로한 드레스의 발표가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란제리 룩의 유행으로 인하여 속옷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화운데이션의 형태적 특징들이 겉으로 표출되었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복식의 종류가 드레스이다.

화운데이션 드레스는 여성의 체형을 보정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속옷의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겉옷에 활용한 드레스로서 슈퍼 세시룩의 흐름에서 생겨난 것인데, 코르셋이나 올인원 등이 미니스커트, 드레스로 변형되어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반대로 슬립 등 란제리를 드레스화한 것은 “란제리 드레스”²⁴⁾라고 한다. 이브닝 드레스는 밤에 입는 정식 옷차림으로 파티, 또는 음악회 등에 입는 야회복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어깨, 팔, 가슴 등을 노출시키고 옷길이를 길게하며 소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드레스를 통하여 란제리 룩이 활성화되었고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작품세계를 표현할 수 있었다. 속옷에 대한 장식 충동은 겉옷과 외형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에서 비롯되어 속옷에 근원을 두는 겉옷에까지 확대되어 의복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속옷의 기능과 장식적인 요소는 의복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조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²⁵⁾

(1) 형태의 유희성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유희적인 요소와 이질적 요소의 도입, 강조, 왜곡을 통해 변형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공되었다. 유희와 이질적 요소에서 중요한 특징은 자유스러운 것 바로 자유이다.

자유는 감정, 유희 쾌감 등 내적 의미가 '90년대 들어서 란제리 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6)

(2) 소재의 경쾌함

'90년대 란제리 룩에 나타난 소재의 특징은 흐르는 듯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가볍고 투명한 오간자, 쉬폰, 레이스, 망사 같은 소재를 활용한 인프라 의상은



<그림 6> 비비안 웨스트우드 작품
(93-94 A/W VOGUE)



<그림 7> 지아니 베르사체 작품
(93-94 A/W VOGUE)

대담한 노출과 세시함을 강조한 다양한 디자인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그림 7)

(3) 고전적 실루엣

인프라의상에서 있어서 드레스의 실루엣은 고전

24) 복식사론. (도서출판 라사라, 1992), p.85.

25) 이선재역, 전개서, p.10.



<그림 8> 앤드류 그로브즈 작품
(99 A/W VOGUE)

적인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에 풀한 스커트의 형태로 많이 보여지고 있으나 세기말이 되면서 미래패션의 영향으로 파격적인 형태의 드레스도 선보이면서 드레스는 다양한 실루엣을 선보이고 있다.(그림 8)

V. 화운데이션 드레스 개발

1. 디자인 개발

현대의 인프라 의상은 기존의 형식에 얽매어는 디자인이 아닌 새로운 소재의 도입과 현대적 감각에 맞춘 복식 디자인의 창조가 중요하다.

인프라 의상은 속옷이었던 의상을 일상의 옷으로 꺼내어 입으면서 속옷에 주로 사용되었던 가볍고 얇고 비치는 의복 소재와 다양한 스판 원단을 사용하여 신체를 감추어진 듯 드러내어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의 극대화와 적합성(fit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화운데이션의 형태적 종류를 모티브로 속옷 업체의 제반 시설을 이용하여 인프라 의상의 진정한 미를 표현한 드레스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첫째, 속옷의 스판 소재를 중심으로 탄제리 업체 의 샘플사들의 숙련된 봉제의 기술적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발하였고 둘째, 탄제리 업체에서 사용하는 봉제방법을 디테일 장식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였다. 셋째, 화운데이션을 모티브로 사용하여 실루엣의 자연스러움과 장식적 측면을 강조하며 조형적 미를 최대한 표현하여 디자인하였다.

위의 세 가지 디자인 요소를 기준으로 5개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작 품 I : 올인원 드레스 *

구성 : 올인원의 형태를 모티브로 원피스를 변형시킨 드레스. fit성, 기능성을 강조한 작품

소재 : 스판원단, 파워망, 스트레치 세폭 레이스, 와이어, 부직포, 후크아이 (hook-eye), 5m/m 접테이프.

기법 : 스카랍, 평이본, 이본침, 이본오마, 패거탕

* 작 품 II : 브라벨룬 드레스 *

구성 : 롱브라의 형태를 이용해 디자인되었으며 브라의 물딩을 치마부분에 장식함으로써



<그림 9> 작품 I



<그림 10> 작품 I의 세부도

소재 : 샤틴, 망사노방, 금색망사, 톨새폭레이스, 스트레치 레이스, 스팅글, 5m/m 주자레이프, 스킨색 스팅망사, 와이어, 브라플딩.
기법 : 이분오바, 인터록, 이분침.

*** 작 품 III : 본디드 드레스 ***

구성 : 플라스틱 본(Bone)을 이용한 드레스로 거들의 타미 기능을 모티브로 이용한 작품.
소재 : 스팅텍스, 코팅된 폴리실크, 와이어, 4골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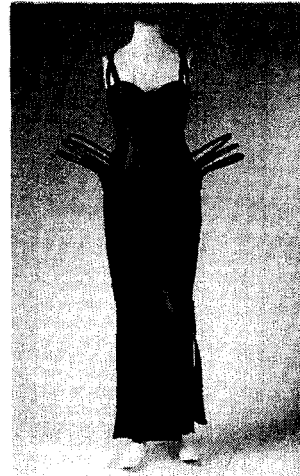


<그림 11> 작품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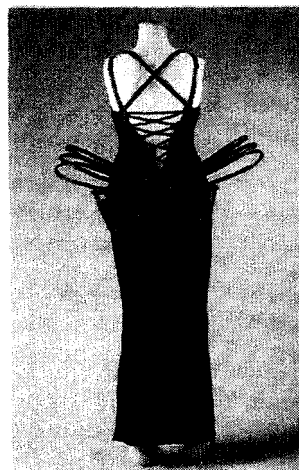


<그림 12> 작품 II의 세부도

기능성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한 조형작품.



<그림 13> 작품 III의 앞



<그림 14> 작품 III의 뒤



<그림 15> 작품 III의 세부도

무릎.
기법 : 이본오바, 이본침, 평이본.

*** 작품 IV : 페티코트 드레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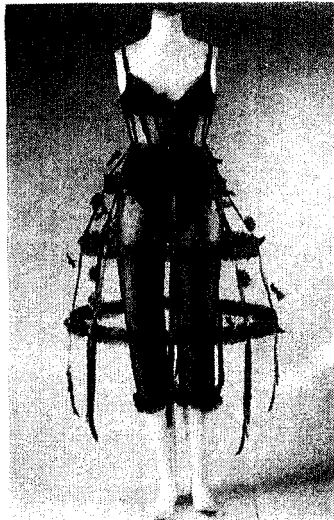
구성 : 바디수트와 카터벨트의 형태를 이용해 디자인된 작품.

소재 : 스판망사, 와이어, 프라스틱 Bone, Hook-eye, 5m/m접테이프, 50m/m 오간자테이프, 5m/m주자테이프, 부직포, 카터벨트고리.

기법 : 이본침, 평이본, 지그재그, 이본오바.

*** 작품 V ***

구성 : 웨이스트 니퍼를 모티브로 활용하여 가장 고



<그림 16> 작품 IV



<그림 18> 작품 V



<그림 17> 작품 IV의 세부도



<그림 19> 작품 V의 세부도

전적인 실루엣을 표현하는 드레스의 작품.

소재 : 5m/m 주자테이프, 50m/m 랫셀레이스, 스틸본.

기법 : 이본침, 쓰리스티치, 이본오바, 본봉.

VI. 결 론

복식은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현대 패션의 흐름은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패션은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스타일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트렌드로 자리잡아 나타나는 유행이 속옷의 걸맞화 현상이다. 속옷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 디자인은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오고 있다.

우리 나라도 속옷의 걸맞화를 활용한 드레스의 문화가 세계와 때를 같이 하여 패션거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나라의 드레스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랫셀리 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조사한 문헌들을 기초로 인프라 의상의 정의 및 출현배경, 실루엣의 변형을 알아보고 현대 패션에 화운데이션 드레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세계 유명 디자이너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고 화운데이션의 형태적 종류를 모티브로 랫셀리 업체의 노하우와 신소재 사용, 실루엣의 자연스러움을 반영한 화운데이션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제작한 5개의 작품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I은 울인원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원피스 드레스로 인체의 곡선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으로 브라의 형태와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고 허리의 파워망은 허리의 곡선을 강조하면서 탄성도 강조하고 있다. 화운데이션의 형태와 기능을 가진 드레스이지만 자극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면과 에로티시즘이 나타나고 있다.

작품 II는 롱 브라의 형태와 기능을 모티브로 활용한 드레스로 화운데이션 부자재인 브라의 몰딩을 치마에 장식함으로써 해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

며 장식적 측면이 강한 작품이다.

작품 III은 브라와 거들의 타미 기능을 활용한 드레스로 bust 부분은 입체적으로 브라위에 bone으로 장식하고 복부에 bone을 넣은 다이아몬드형은 거들의 복부를 눌러주는 타미 기능을 함으로써 기능적 측면과 장식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으며 실루엣은 조형적 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 IV는 바디수트와 가터 벨트를 모티브로 활용한 드레스로 바디 수트는 기능적 측면을, 가터 벨트는 장식적 측면을 강조한 작품으로 형태면에서는 유희적인 면이 보이거나 작품의 성격은 페미니즘이 나타나고 있다.

작품 V는 웨이스트 니퍼를 모티브로 활용한 드레스로 허리를 조여주는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치마의 풍성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이 작품은 세기말에 나타나는 호화롭고 장식성이 강한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랫셀리 업체에 설비된 특수 봉제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랫셀리 업체의 숙련된 봉제기술의 노하우를 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장식적 측면과 인체 공학적인 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패션에 있어서는 소재의 개발 또한 디자인의 한 영역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또한 창조적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랫셀리 업체의 특수소재를 사용하여 속옷의 기능미를 살린 드레스 디자인 또한 새로운 디자인 개발 영역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드레스와 화운데이션의 접목으로 내면에 착용되는 화운데이션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었다.

넷째, 인프라 의상에 영향을 준 에로티시즘, 페미니즘, 해체주의, 세기말 경향 등은 형태, 소재, 실루엣을 통하여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의상이 세계적 트렌드로 인식되면서 가장 많이 선보이는 의상이 드레스임을 인지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드레스 문화가 세계적 트렌드들과 발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화운데이션의 봉제 기법과 형태, 소재를 응용한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드레스 문화의 발전뿐 아니라

란제리 업체의 새로운 아이템 개발의 확장을 제시한 것이다. 란제리 업체는 아이템 확장을 화운데이션으로 한정하지 말고 란제리 웨어로 확대시켜 란제리의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한 드레스 개발과 각 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는 맞춤 속옷의 개념을 드레스에 도입시켜 좀더 기능성이 강화된 드레스의 개발을 시도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주영 (1995).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한주 (1995).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부자, 최선화 (1993). 의복의 구축성에 관한 연구(Ⅲ) - 화운데이션의 의복압과 근 활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7권 2호.
- 안영숙 (1986). 화운데이션의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재 역 (1996). *인프라 의상*, 서울: 경춘사.
- 임영미 (1984). 옷과 장신구와 옷입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 경춘사.
- 유송옥 (1983). *복식의장학*, 서울: 수화사.
- 장경주 (1993). 1980년대에 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쌍방울 (1997). *신입사원연수교재*.
- 채금석 (1994). 현대복식에 나타난 프랑스 표현주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 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가치를 중심으로*, 서울: 경춘사.
- 최원 (1995). 서양 여성속옷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ary Brooks Picken (1973). *The fashion Dictionary*, N.Y: Funk & Wagnalls.
- Jennifer Ceaik (1993). *The Face of Fashion*, chap. 6 States of Undress Richard Martin & Harold Koda, *Infra Apparel* (N.Y: Metropolitan Mesuem of Art).
- Valerie Steele (1994). *Women of Fashion - Twentieth Century Designers*, N.Y: Rizzoli.